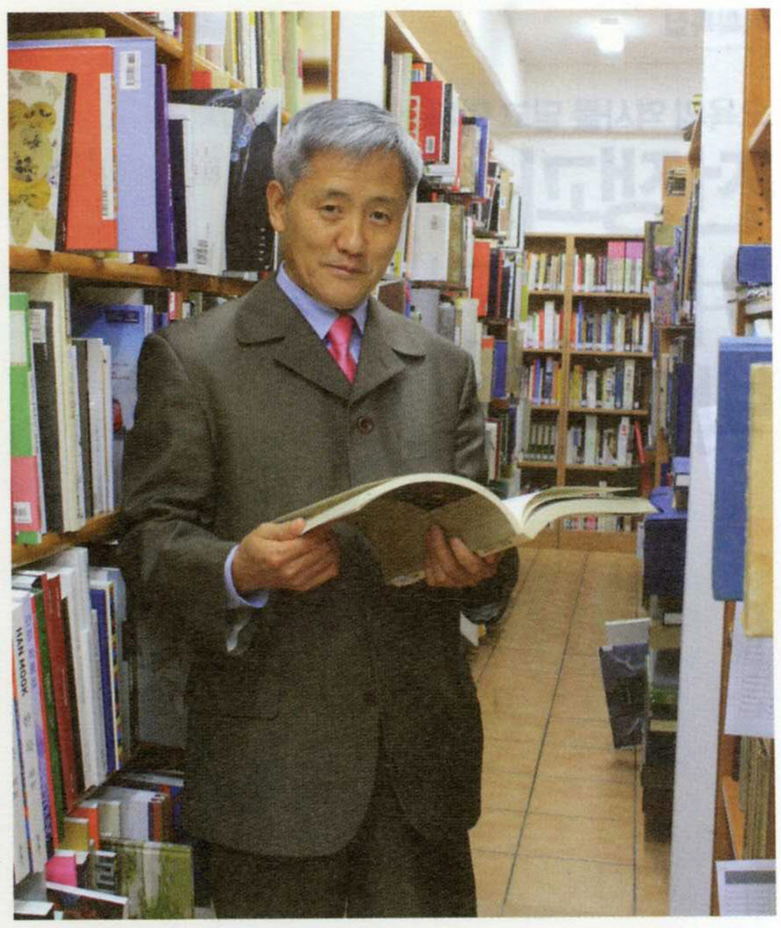
근현대 미술사의 비밀을 엿보고 싶다면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

197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시회가 열렸다.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등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이 망라된 전시였다. 그런데 이런 유명작가를 제외한 무명작가들,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수많은 작가들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미미했다. 당시 전시장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한 소년이 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다. 미술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겠다고 마음 먹은 이 소년이 바로 **김달진 관장**(57)이었다. 그후 김달진 관장은 헌책방을 이 잡듯이 뒤지고, 미술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고, 인사동을 직접 돌아다니며 전시 팸플릿을 수집했다. 열정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렇게 평생 모은 미술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2001년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열었다. 그리고 2008년 3월에는 그때까지 모은 자료를 일반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던 일반자료실을 발전시켜 국내 최초의 미술자료전문 박물관을 개관했다.

박물관과 연구실은 2010년 장소를 옮겨 홍대 주변에 자리 잡았다. 홍대앞으로 이사한 후에는 열람실 기능을 분리해 한국미술정보센터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두 곳으로 나눠 운영중이다. 다양한 근현대 미술 자료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미술정보센터로 접근하면 편하고, 기획전을 통해 귀중한 미술 사료 전시를 보고 싶다면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방문하면 된다. 두 곳 모두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다.

한국미술정보센터는 일제 강점기를 시작으로 출간된 미술관련 단행본, 정기간행물 자료부터 학회지, 학위논문, 도록, 전시 팸플릿, 신문기사 스크랩과 함께 270여 명의 국내 근현대 작가 자료가 축적된 파일들까지 방대한 자료를 소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단행본 2만 1,000여 권, 정기간행물 9,600여 권, 학회지 1,000여 권, 논문 650권, 디지털 작품 이미지 1만 190점 등의 미술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1717년 만들어진 〈서경대전〉,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 잡지로 1921년 발행된 〈서화협회회보〉 창간호, 우리나라 최초의 2인 화집인 오지호, 김주경 화집(1938) 등 희소성이 큰 근대미술사 관련 자료들이 많다. 이 광범위한 아카이브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인 달진닷컴www.daljin.com도 구축되어 있다. 한국미술정보센터가 아카이브 중심이라면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획전을 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기획전: 미술 정기간행물 1992–2008전'을 시작으로, 2010년 2월에는 '해방 전후 비평과 책전', 2011년에는 '한국 근현대 미술교육자료전', 2012년 4월에는 '외국미술 국내전시 60년 1950–2011' 등의 기획전시도 준비했다. 최근에는 '한국화가 유양옥 선생 기증자료전'이 열렸다.



그 외에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는 국내외의 미술정보를 수록한 무가지 월간 〈서울 아트 가이드〉도 펴내고 있다. 말 그대로 근현대 미술의 아카이브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미술에 대한 관심이 대중화되면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분류하고 기록·보존하는 아카이빙 작업은 중요한 일입니다. 또 최근에 터진 박수근의 빨래터 위작 사태 등에도 아카이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가와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스케치나 메모, 일기 등 작품 관련 자료와 만들어진 과정, 대회나 전시 출품 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그리고 이력과 유통 경위를 기록하고 남긴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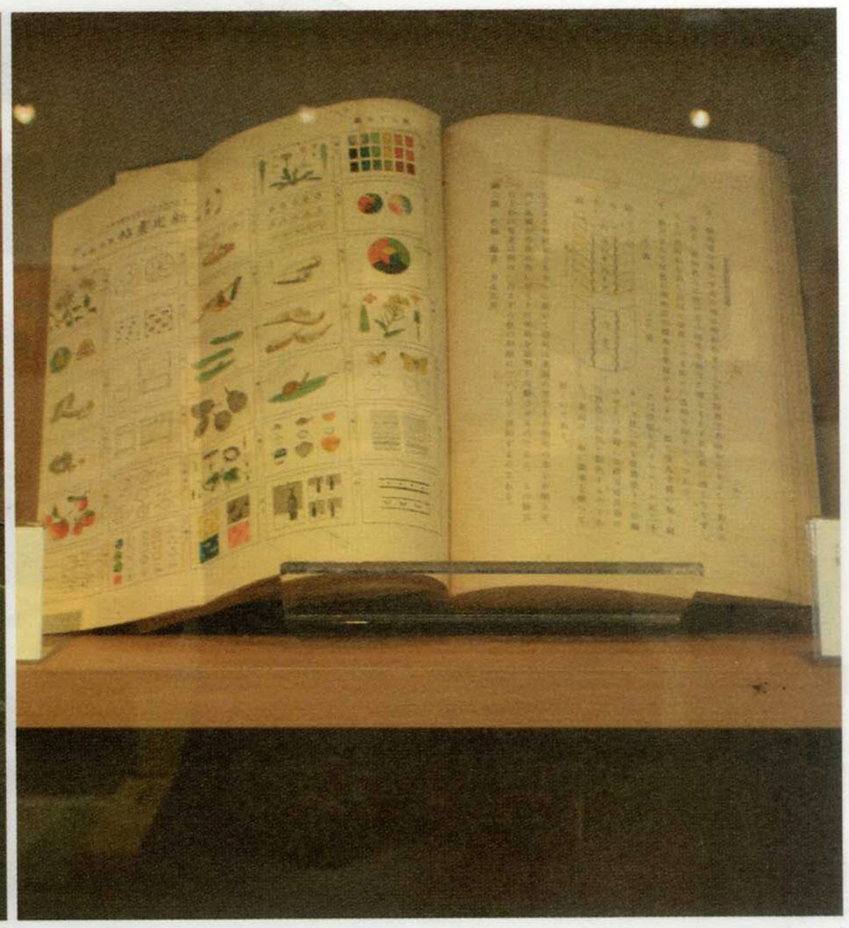
김관장은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한다.

"미술자료가 바스라지고 없어지는데도 이런 것을 복원하고 남겨놓는 곳이 없습니다. 공적인 유산이며 과거는 물론 현재를 기록하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개인의 관심과 취미로 시작된 일이라지만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김관장은 무거운 자료와 사료가 담긴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어깨에 종양이 생겨 작년에는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대체 왜 그는 평생을 바쳐 미술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공유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일까.

"처음에는 취미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죠. 제가 모은 자료로 과거 전시나 공모전의 특징을 밝힐 수 있고 잘못된 미술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 사라지는 미술가를 정리해 우리나라 미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무의미해 보일지 모르는 자료라 할지라도 이 자료들이 한국 근현대 미술사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자료가 의미 있게 기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분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김관장. 그래야만 다양한 연구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자료 하나하나가 우리 근현대 미술의 의미있는 역사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의 말이 귓가에 쟁쟁하다. H 글 | **임은선** 에디터

Add. 창전동 6-4
Tel. 02-730-6216
Open 월~금 10:00~18:00, 토 10:00~15:00(일요일 휴관)
Web www.daljinmuseum.com
Price 관람료 무료